

유통·화장품 한 주 파악잡기



Analyst 안지영 6915-5675 [jyahn@ibks.com] / RA 김진영 6915-5655 [jykim5316@ibks.com]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락앤락 "6천억원 규모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 (연합뉴스 2017.08.25)

락앤락은 최대주주인 김준일과 특수관계인 김창호가 컨슈머스트렙스(Consumer Strength Limited)에 보유주식 3천 496만 1천 267주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5일 공시함. 매도 주식은 김준일 2천 903만 5천 919주 (52.79%), 김창호 592만 5천 348주 (10.77%). 각각 5천226억원, 1천66억원에 주식을 매도함. 회사 측은 "계약은 25일 체결됐으며 향후 거래 선행조건이 충족되어 대금지급과 주식 인도가 완료되면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

롯데백화점, 자체브랜드 사업 강화 (파이낸셜뉴스 2017.08.27)

롯데백화점이 자체브랜드(PB)를 통합하며 PB사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 롯데백화점은 PB의 시너지를 높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 모든 PB를 통합해 '엘리든'(로고:ELIDEN)을 론칭한다고 밝힘. 통합브랜드명인 엘리든은 롯데백화점이 처음 론칭한 여성수입의류의 이름으로 트렌디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추구. 엘리든은 롯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통일된 매장 인테리어 콘셉트와 로고로 변화시켜 고객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각 브랜드별 고객 타겟과 컨셉트에 걸맞는 상품들로 재정비해 브랜드별 차별화에 집중할 예정. PB별 고객 수요 파악에 더욱 집중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롯데만의 상품을 합리적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

스타필드 고양 그랜드 오픈 첫날 10만2000명 찾아 '성황' (파이낸셜뉴스 2017.08.25)

수도권 서북부지역 최대 실내테마파크인 신세계의 '스타필드 고양'이 그랜드 오픈 첫날 10만2000명이 찾아 성황을 이룸. 25일 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개장한 스타필드 고양점은 이날 오후 10시까지 10만2000여명이 다녀감. 앞서 스타필드 고양점은 프리오픈 기간인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45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인기를 예고함. 이는 하루 평균 6만5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스타필드 하남의 사전 오픈 기간보다 운영 시간이 1시간 적었는 데도 10% 더 많은 방문객을 기록. 한편 스타필드 고양의 영업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홈쇼핑 '방긋' 대형마트 '시무룩' (국민일보 2017.08.27)

쇼핑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집에서 인터넷쇼핑이나 홈쇼핑을 즐기는 이들이 늘었고 마트와 편의점, 백화점은 발길이 줄었음. 실제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뚜렷이 나타남.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별 2분기 실적은 홈쇼핑이 가장 좋았다. 반면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줄었고 백화점은 역신장을 기록함. CJ오쇼핑의 경우 2분기 취급고가 전년 동기 대비 20.9% 늘어난 9181억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취급고를 달성함. 2분기 영업이익은 4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증가했다. 홈쇼핑의 경우 모바일 확대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며 대부분 업체의 영업이익이 두자릿수를 시현함. GS홈쇼핑의 2분기 취급고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9866억원, 영업이익은 3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함. 현대홈쇼핑도 2분기 취급고는 8896억원, 영업이익이 연결기준 2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 롯데홈쇼핑은 2분기 영업이익 3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늘었음. 이는 홈쇼핑 업체가 단독상품을 늘리며 안방을 사로잡고 있고 온라인과 모바일 T커머스 사업에도 주력하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 20~30대의 주요 채널에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며 끊임없이 접촉지대를 늘리고 있음.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재작년에 온라인 마켓과 채널을 넘어 경쟁하면서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올해 성과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작년에 프로모션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이 좀 더 커졌다"고 전함

중고급소비재시장 韓수출 74%는 뷰티... 사드 보복에 취약 (이데일리 2017.08.27)

중국에서 고급소비재시장이 나홀로 고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문 국내 기업의 수출은 뷰티 상품에 크게 치중된 것으로 나타남. 현대경제연구소가 27일 내놓은 '새로운 수출 활로, 중국 고급소비재 시장' 보고서를 보면 국내기업이 중국 고급소비재시장에 수출하는 품목 중 1위인 뷰티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3.5%였음. 1위 상품 의존도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았음. 한국의 뒤를 이은 스페인(59.5%), 스위스(52.7%), 일본(55.8%) 에 비해서도 월등한 수준. 이처럼 뷰티상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추가 성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중 간 외교 마찰이 있을 때 쉽게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현경연은 진단. 뷰티상품 등은 중국산업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원자재·자본재와 달리 수입제제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고급소비재시장은 포기할 수 없는 '꿀단지'다. 중국의 수입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와중에서도

나홀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 현경연에 따르면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고급 소비재시장이 거의 유일하게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 고급소비재 수입시장은 10년간 연평균 17.4% 성장하며 5배 가량 커짐. 중국 총수입이 2015년과 2016년 사이 각각 14.3%, 5.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고급소비재 수입은 12.7%, 1.7% 증가함.

‘슈퍼갑’ 中 보따리상... 적자에도 눈물의 할인 (서울경제 2017.08.26)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지만 매출은 늘어나는 ‘기현상’이 나타남.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의 외국인 이용객은 105만 9,565명으로 1년 전인 지난해 7월(191만 7,166명)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반면에 지난달 외국인 매출은 6억 9,371만 달러로, 전년 동기 6억 3,751만 달러보다 8.8% 증가. 중국의 ‘한국 관광 금지령’으로 3월 중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 외국인 매출이 예상외로 증가하고 있음. 이유는 간단함.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구매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대다수 신규면세점의 경우 외국인 매출에서 파이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60~70%까지 치솟음. 롯데·신라 등 업력이 오래되고 개별 관광객(싼키)이 많이 찾는 대형 면세점들도 파이공 비중이 30~40%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짐. 보따리상 의존도가 커지다 보니 면세점이 이들에게 제공하는 할인율이 무려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 기존에는 품목별로 5~15%의 가격 할인만 제공. 최근 들어 파이공이 한국 여행사 법인을 앞세워 우수 고객으로 들어오다보니 알선수수료를 비롯한 여러 명목의 수수료까지 더해 사실상 2배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후문. 그나마 사정이 나은 롯데·신라 등 기존 대형업체들도 수수료까지 포함해 15% 내외의 혜택을 파이공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짐.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면세점의 몫이 될 수익이 모조리 파이공의 혜택으로 둔갑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

업종코멘트(8/28-9/1)

화장품: 한중수교 25주년에 대한 기대감과 화장품에 대한 국내 기관 수급이 해소된 상황에서 업종 전체적인 주가 반등을 보임. 반면에 7월 중국인 입국자 증감율은 -69%, 외국인 매출액도 여전히 -45% 수준이며, 업계에도 영업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신호는 없는 상황임.

유통업: 롯데쇼핑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주총회를 29일로 앞둔 상황. 현재 주가는 매수청구가 231,404원을 충분히 상회하고 있음. 또한 최근 지주사설립 이후 국내외 핵심 사업에 대한 중단기 전략변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성에 근거한 목표 배당 성향 30%를 제시함.

표. 주간 Index 지표와 시가총액 증감률

지수	증가(p)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KOSPI	2,378.51	0.85	롯데쇼핑	0.93	4.45	-4.42	GS리테일	-2.68	-4.65	-18.20
KOSDAQ	650.27	1.04	현대백화점	-0.31	-2.86	-11.85	코웨이	-0.61	-2.21	-3.18
유통업	459.66	0.14	신세계	-1.52	-4.41	-13.33	아모레퍼시픽	3.93	3.93	1.22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0.22	-4.34	-4.54	LG생활건강	-2.15	-2.05	-0.62
KRW/USD	1,127.30	-0.76	롯데하이마트	5.84	6.82	3.77	코스맥스	2.99	3.43	15.87
KRW/JPY	1,028.98	-0.79	CJ오쇼핑	-0.05	-1.65	16.26	한국콜마	-4.50	-8.74	-6.93
KRW/CNY	169.33	-0.40	현대홈쇼핑	0.73	-6.44	2.22	토니모리	3.81	0.31	-12.80
			엔에스쇼핑	-2.37	-2.37	0.30	잇츠스킨	4.13	1.61	-4.90
			GS홈쇼핑	-0.14	-5.17	-5.17	클리오	-2.18	1.66	4.83
			BGF리테일	0.11	4.99	-4.54	코스메카코리아	-8.72	0.17	-0.49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표. 글로벌 피어 주가 상승/하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시세이도	0.0	2.2	17.3	LVMH	0.1	1.7	-0.4	월마트	-1.2	-2.6	-0.2
로레알	2.6	3.6	-0.2	ULTA	-4.3	-6.9	-8.9	테스코	6.2	5.8	7.7
에이본프로덕츠	-2.3	-7.6	-31.7	노드스트롬	-1.2	-2.4	-8.9	타겟	-2.6	-2.6	-1.6
상해자화	-0.6	4.7	-0.3	맥스&스펜서	-0.2	-3.3	-1.5	까르푸	-1.1	-1.2	-2.0
크리스찬디올	0.9	3.4	4.5	다카시마야	0.1	-1.1	-0.2	텐센트	0.0	4.9	8.0
P&G	-0.2	1.0	3.5	이온 몰	-3.1	-5.9	-7.1	알리바바	4.5	15.4	14.8
고세	1.9	3.2	9.5	세븐&홀딩스	-0.1	-2.1	-1.1				
에스티로더	0.1	6.4	7.4	아마존	-0.6	-1.6	-8.4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화장품 글로벌 피어	시세이도	로레알	에이본 프로덕츠	상하이 자화	크리스찬 디올	P&G	고세	에스티로더	LVMH	ULTA
현재가(USD)	41.20	212.14	2.56	4.69	301.64	92.27	120.38	106.01	257.07	233.71
시가총액(백만USD)	16,482	118,790	1,126	3,157	54,448	235,290	7,294	38,994	130,327	14,498
매출액 (백만USD)	2015 7,110 2016 7,840 2017 8,700 2018 9,142	28,036 28,597 30,866 32,041	6,161 5,718 5,744 5,845	922 793 827 920	42,195 42,144 48,789 53,062	70,749 65,299 65,058 67,065	1,900 2,029 2,468 2,661	10,780 11,262 11,824 12,790	39,587 41,617 48,812 52,164	3,241 3,924 4,855 5,872
영업이익 (백만USD)	2015 252 2016 339 2017 488 2018 623	4,724 4,385 5,612 5,919	165 322 361 399	118 28 71 99	7,218 7,321 9,235 10,020	11,049 13,441 13,955 15,009	207 289 362 408	1,606 1,610 1,692 2,095	7,101 7,638 9,550 10,554	410 506 655 813
순이익 (백만USD)	2015 308 2016 296 2017 288 2018 378	3,660 3,438 4,439 4,687	-1,149 -108 73 139	352 33 62 85	2,860 1,742 2,549 2,796	7,036 10,508 15,326 11,145	110 156 200 237	1,089 1,115 1,249 1,455	3,966 4,406 5,697 6,342	257 320 410 520
PER (배)	2015 25.3 2016 36.8 2017 56.7 2018 43.0	26.2 31.2 26.7 25.2	94.3 124.4 24.2 8.9	11.9 84.7 51.5 37.7	13.2 16.5 21.4 19.1	19.2 22.5 22.4 22.1	31.4 33.5 26.5 29.2	30.2 28.0 27.7 26.9	20.4 22.9 22.7 20.4	33.3 36.1 41.0 28.0
ROE (%)	2015 9.3 2016 8.2 2017 7.9 2018 9.6	15.1 12.9 14.8 14.7	N/A N/A 2.4 -71.3	46.4 3.9 7.3 9.4	21.4 14.7 18.3 17.0	10.5 17.5 27.8 19.6	9.1 13.0 13.9 15.4	29.0 30.9 31.3 39.5	15.5 15.7 17.4 17.8	22.9 23.8 27.4 29.6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P&G, 고세, 에스티로더, ULTA는 2018년 수치만 추정치. 자료: Bloomberg

유통 글로벌 피어	노드 스트롬	맥스& 스펜서	다카시 마야	이온 몰	세븐& 홀딩스	아마존	월마트	테스코	타겟	까르푸	텐센트	알리바바
현재가(USD)	43.82	4.05	9.20	18.00	39.92	952.45	78.34	2.40	54.21	23.77	41.66	175.00
시가총액(백만USD)	7,276	6,583	3,271	4,094	35,385	457,537	236,156	19,657	29,611	18,416	395,709	448,202
매출액 (백만USD)	2015 13,506 2016 14,437 2017 14,757 2018 15,305	16,644 15,914 13,882 13,874	7,887 7,177 7,962 8,460	1,889 1,904 2,496 2,679	46,289 40,548 42,978 55,552	107,006 135,987 168,935 207,174	485,651 482,130 485,873 495,808	92,606 81,684 74,106 73,521	72,618 73,785 69,495 70,731	88,145 87,844 94,807 97,403	16,371 22,880 34,379 46,096	12,302 15,912 23,531 35,231
영업이익 (백만USD)	2015 1,323 2016 1,101 2017 805 2018 967	1,132 881 331 866	297 273 314 319	388 364 416 458	3,181 2,920 3,372 3,524	2,233 4,186 3,565 6,785	27,147 24,105 22,764 22,752	-9,354 1,624 1,348 1,921	4,535 5,530 4,969 4,249	2,429 2,190 2,853 3,096	6,052 7,971 11,326 14,361	3,735 4,578 7,145 11,310
순이익 (백만USD)	2015 720 2016 600 2017 354 2018 499	785 613 153 594	209 198 193 206	227 204 264 272	1,603 1,334 895 1,755	596 2,371 5,606 8,358	16,363 14,694 13,643 13,182	-9,339 209 -53 1,052	-1,636 3,363 2,737 2,477	1,088 826 1,326 1,485	4,585 6,188 9,455 12,167	3,917 11,242 6,493 12,796
PER (배)	2015 20.3 2016 14.6 2017 13.6 2018 14.6	17.8 16.4 46.8 11.3	16.9 13.3 16.9 15.8	21.5 14.8 13.8 15.1	23.4 24.7 40.2 20.3	537.8 152.7 88.0 60.7	17.0 15.1 15.4 17.8	N/A 56.8 234.6 18.7	17.4 15.4 12.7 12.0	19.7 21.6 13.5 12.2	41.2 38.7 42.2 32.5	66.5 55.3 47.1 35.4
ROE (%)	2015 31.9 2016 36.2 2017 40.7 2018 57.2	16.5 12.2 3.5 14.0	5.9 6.0 5.1 5.4	7.9 7.4 8.3 8.3	7.9 6.9 4.1 8.0	4.9 14.5 14.2 19.5	20.8 18.1 17.2 17.0	-52.7 1.8 -0.5 11.9	-10.8 25.0 22.9 22.4	10.4 7.4 9.8 10.3	28.8 27.9 29.6 28.7	27.5 39.3 17.5 20.6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아마존, 까르푸, 텐센트 외 종목은 2018년 수치만 추정치. 자료: Bloomberg